

돌봄거래소로 돌봄을 나누다

목차

- I. 돌봄거래소 개념
- II. 유사 사례 및 쟁점
- III. 정책 제언

시대변화에 따라 가족돌봄의 공백 발생 및 사회적 돌봄 강화

- ▶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등 가족유형변화로 가족돌봄은 한계
 - 경기도는 노인인구 200만 명을 초과했으며 돌봄필요도가 높은 80세 이상의 노인1인가구는 39.7%에 달하고 있음
 - 2050년에는 가구유형이 1인가구(39.6%), 부부가구(23.3%), 부부+자녀가구(17.1%) 순으로 변화할 전망
- ▶ 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정조건을 충족해야 해 생활권에서 손쉽게 돌봄을 주고받을 기회가 부족

돌봄거래소 : 기존 돌봄서비스의 틈새를 채우는 돌봄서비스 플랫폼

- ▶ 돌봄이 필요할 때 손쉽게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고, 지역주민이 제공자이며, 이용자가 되는 서비스 이용 형태
 - 자발적이며 비전문적인 서비스를 주민 간에 주고받으며 공공돌봄서비스의 틈새를 보완하는 서비스
- ▶ 공동체 운동의 하나인 타임뱅크를 활용하여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례가 등장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일본의 불란티어포인트 제도, 서울시간은행제도 등이 운영 중
- ▶ 돌봄서비스 플랫폼 설계 시 3가지 쟁점을 고려해야 함
 - ① 기능의 독립성 ② 운영기관의 공공성 ③ 보상방법의 적합성

정책제언

- ▶ 이용자 범위와 활동 범위(서비스 종류·지리적 범위 등)의 명확화가 필요
- ▶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네트워크와 정보공유
 -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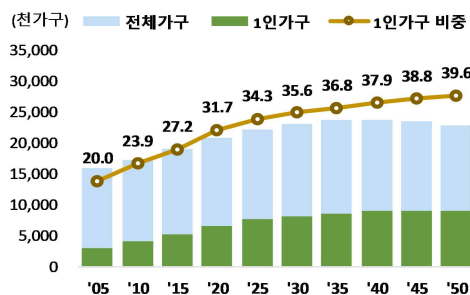
ISSN 2982-5547

가족돌봄을 대체할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대두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대표되는 가족형태 변화는 가족 돌봄을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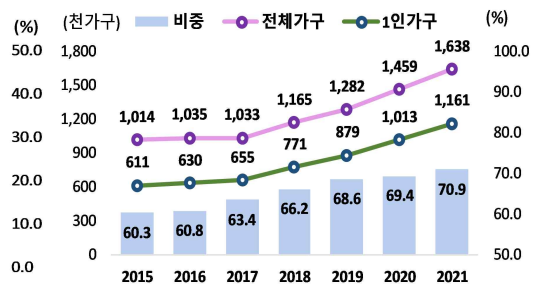
- ▶ 전국의 고령화율은 2023년 3월 기준 18.3%, 1인가구 비율은 2021년 기준 33.4%에 해당하며 경기도는 고령화율 14.9% 1인가구 비율 29.2%임¹⁾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까지 시간이 있으나, 전라남도과 같이 이미 25.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도 있음
 - 전국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이 되면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경기도는 고령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이미 올해 노인인구 200만 명을 초과했으며 돌봄필요도가 높은 80세 이상의 노인 1인가구는 39.7%에 달하고 있음
- ▶ 가족유형의 변화로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 증대
 - 2020년 가구유형은 1인가구(31.2%), 부부+자녀가구(29.3%), 부부가구(16.8%) 등의 순으로 많았으나, 2050년에는 1인가구(39.6%), 부부가구(23.3%), 부부+자녀가구(17.1%) 순으로 변화할 전망²⁾
 - 남성 1인가구는 나이가 들에 따라 비중이 감소하나 여성은 50대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 검토 필요
 - 1인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가족관계 만족도(6.8%p)가 낮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비중은 2021년 현재 70.9%에 해당

〈그림 1〉 1인가구 비중 변화, 2005-2050



통계청(2022).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보도자료

〈그림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 돌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를 요구함
 - 1인가구의 53.9%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41.3%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³⁾

1) 통계청 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heckFlag=N
 2) 통계청 2022.06.28. 보도자료
 3) 황경란 박소영·박수선·조성희·최성은(2021). 『경기도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 경기복지재단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돌봄 교환 운동이 등장

사회적 돌봄 요구에 대응한 돌봄서비스 정책의 한계

- ▶ 노인인구와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돌봄서비스 정책이 개발·제공되고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 정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년)가 대표적이며,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20년),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2019) 등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이동동행사업 등 경기도 사업이 있음
 - 장애인돌봄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있으며 각 장애인지원기관과 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등이 있음
 -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사업은 시친구만들기, 마을공동부역 등이 있음
- ▶ 시행되고 있는 돌봄서비스 정책은 선정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제공되며, 전문적이고 지속적 서비스로 설계되어 있어, 돌봄필요도가 높지 않거나 단기적·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에 한계가 있음
 - 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연령, 소득수준, 신체기능 정도 등 선정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정해진 급여체계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양·횟수·시기 등이 불일치는 경우도 발생
- ▶ 이러한 한계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게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 운동이 모색됨
 - 공동육아와 공동돌봄을 운영하는 성북마을, 도시공동체 성미산마을 등의 사례가 있으며 돌봄영역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 예로 들 수 있음

기존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서비스 플랫폼 운영 중

- ▶ 공동체 운동의 하나인 타임뱅크⁴⁾를 활용하여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례가 등장
 - 타임뱅크는 노동행위를 화폐로 교환하는 일방적 교환방식이 아닌 타인과 공공을 위한 활동을 시간으로 기록, 적립, 사용하는 연속적 교환방식으로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 타임뱅크의 시작인 2002년 구미요한선교센터의 사랑고리 운동은 공동협력생산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으며, 구미시니어클럽, (주)참살이 등으로 확장 중
 - 국내 사례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2015년), 서울 시간은행(2022년) 등이 있음
 -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나눔문화은행 관련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⁵⁾

4) 네이버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83%80%EC%9E%84%EB%B1%85%ED%81%AC>(2023.04.12. 추출)

5) 민효상·김정희·김유선·문정은(2017). 『경기도 나눔문화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경기복지재단
민효상·신동길(2021). 『(가칭) 경기도 나눔문화은행은 왜 필요한가』. 경기복지재단
민효상·유은자·이성욱(2022). 『경기도 나눔문화은행 운영모델 개발』. 경기복지재단

I. 돌봄거래소 개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플랫폼
경기도형 돌봄거래소

- 일본의 불란티어포인트제도⁶⁾, 중국의 칭다오시·베이징시, 관저우시 난징시⁷⁾, 스위스의 세인트 갈렌시⁸⁾ 등은 노인돌봄 타임뱅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 ▶ 지역 특성이 다양한 경기도에서도 생활범위의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손쉽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플랫폼의 검토 필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플랫폼 경기도형 돌봄거래소

- ▶ 돌봄이 필요할 때 손쉽게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제공자이며, 이용자가 되는 서비스 이용 형태
- ▶ 사회공헌서비스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은 자원봉사와 유사하나 돌봄거래소는 돌봄영역에 특화되어있으며, 타임뱅크방식을 차용하는 것에 차별성이 있음
 - 돌봄거래소는 지역사회의 주민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주민 서로가 이용자가 되고 제공자가 되는 상호돌봄의 관계를 형성
 - 돌봄거래소의 돌봄은 공공 돌봄서비스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며, 일반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비전문적 서비스에 해당
 - 일방향 자원봉사와 달리 타임뱅크 방식을 활용하여 연속적 교환방식으로 운영됨
 - 개인이 제공한 돌봄활동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적립하고, 적립된 시간만큼 직접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부 또는 지역화폐로도 수령할 수 있음

〈그림 3〉 타임뱅크 방식의 돌봄서비스 흐름도



6) 일본후생노동성(2021.3).『불란티어포인트제도 도입-운용안내서』 <https://www.mhlw.go.jp/content/000761589.pdf>(2023.02.10. 추출)

7) 서울연구원(2021.07.09.) 세계도시동향. 제506호

8) LIFE IN(2022.01.27.). "미국과 유럽의 타임뱅크? 한 중포럼이 '타임뱅크 국제심포지엄' 개최".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3655>(2023.04.11. 추출)

I. 돌봄거래소 개념

돌봄제도의 보완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문제 해결이 기대

- ▶ 기대효과 : 공공돌봄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및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음
 - 돌봄거래소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며, 기존의 공공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조건 충족, 급여체계 내에서의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틈새를 채움
 -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아닌 단기간, 비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서로돌봄의 형태로 활용 가능
 - 이용자와 제공자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이 상승
 - 지역사회에 존재하나 찾기 어려웠던 돌봄 욕구 발굴하고 서비스를 서로 제공함으로 돌봄 공동체 형성
 - 지역주민 간 돌봄 거래는 사회적 나눔문화 인식 확산과 전수, 사회적 통합을 증진
 - 돌봄거래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모두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증대와 돌봄 문제 해결에 따라 안정감 경험

II. 사례 및 쟁점

돌봄거래소 유사 사례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일본의 볼란티어포인트 제도, 서울 시간은행제도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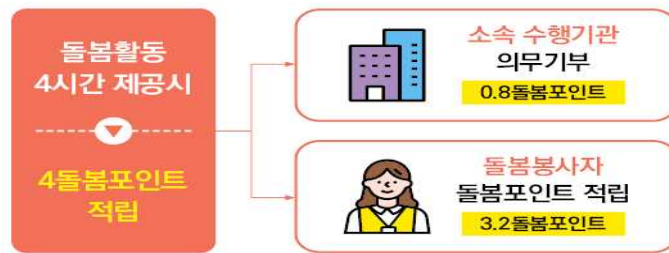
-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이후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는 제도로 2015년부터 운영
- 돌봄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② 적립(만 40세 이후)·기부받은 포인트가 100 돌봄포인트 이상인 자, ③ 전문가(사회복지사, 돌봄코디네이터 등)가 돌봄활동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임
 - 참여절차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에 상담 → 회원가입 → 돌봄활동 연계 → 돌봄포인트 사용
- 돌봄봉사자는 만13세 이상, 기초교육(2시간 이상) 수료자임
 - 참여절차 : 사회공헌활동 수행기관에 상담 → 회원가입 → 기초교육 이수 → 돌봄활동 → 활동일지 작성 후 돌봄코디네이터에게 제출 → 돌봄포인트 적립 및 기부
- 돌봄활동 범위는 ① 인지활동 및 정서지원(말벗, 안부전화, 여가/문화활동 보조, 치매 및 우울증 예방 활동 등), ②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및 보조, 청소 및 주변정리, 세탁, 일상업무 대행, 용모관리 등), ③ 주택안전관리(주택 개/보수, 전기/가스 안전확인, 형광등 교체, 작상 예방 조치 등), ④ 기타(복지서비스 정보 제공)임

9)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https://care.vms.or.kr/\(2023.04.07. 추출\)](https://care.vms.or.kr/(2023.04.07. 추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포인트 정립하고 사용
또는 기부

- 운영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며, 수행기관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및 복지관 등이 있음
- 돌봄포인트는 돌봄활동 1시간 당 1돌봄 포인트가 적립되며, 돌봄포인트 활용은 적립 돌봄포인트의 20% 의무 기부, 적립한 돌봄포인트는 가족·제3자에게 기부가능, VMS(사회봉사활동인증센터)에서 환산 연계 가능
- 만40세 이전 적립한 포인트는 본인 사용 불가

〈그림 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포인트 운영



자료 : https://care.vms.or.kr/intro/care_point.do(2023.04.11 추출)

- 2023년 4월 현재 돌봄봉사자 45,454명, 돌봄대상자 36,984명, 돌봄포인트 1,222,361pt,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은 총 55개소 분포
- 기부은행에 대한 성과로 지역사회에서 주민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사회통합감을 높이는 측면에서 노인돌봄에 의미가 있으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포인트 활용방안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
-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돌봄대상자 4.21점, 돌봄봉사자 4.05점), 사회통합감 향상¹⁰⁾의 성과가 있으며, 비공식적 지지망 활용에 따른 고독사예방의 효과¹¹⁾가 있음

▶ 일본의 볼란티어포인트 제도¹²⁾

- 2007년 '개호보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역지원사업 교부금'으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교부하는 제도임
- 운영하고 있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은 전체 시정촌의 34.1%(전체 593개)를 차지
- 운영주체는 시정촌(개호보험의 보험자)이며,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시정촌은 제도의 운영 주체로 운영기관을 위탁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자금 관리 및 개인 정보 등을 취급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단체로 사무국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단체로 하며, 주요업무는 ① 포인트 대상자 및 활동대상기관 등록, ② 활동조정, ③ 포인트 지급 및 관리, ④ 포인트 환원, ⑤ 기타사업

10) 김예성·최미영·김혜선(202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노인돌봄사업의 효과성 탐색 및 참여만족도가 사회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Vol. 34, pp 4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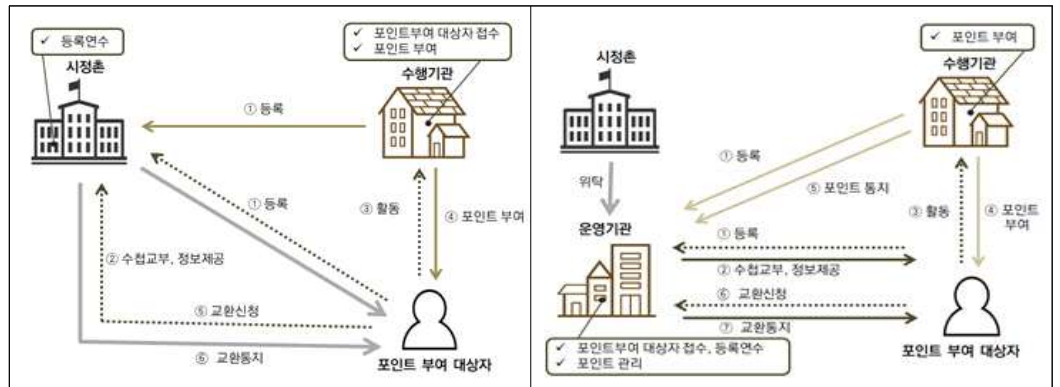
11) 최선경(2021).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 활동 연계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1, pp11-16.

12) 일본후생노동성(2021.3). 『볼란티어포인트제도 도입-운영안내서』. <https://www.mhlw.go.jp/content/000761589.pdf>(2023.02.10. 추출)

**일본의 볼란티어포인트
제도는 개호보험과
개인의 자발적
돌봄제공 활동을
결합**

- 수행기관은 제공자에게 활동 스탬프 제공
- 제공자는 돌봄 활동을 하고 스탬프를 수집
- 재원은 ① 지역 개호예방 활동지원사업(지역지원사업 교부금), 보험자 기능 강화 추진 교부금·개호보험자 노력 지원 교부금, ②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③ 지방 공공단체의 일반재원 등으로 구성됨
- 제도운영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방법과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그림 5〉 볼란티어포인트 제도 운영방법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2021.3).『볼란티어포인트제도 도입·운영안내서』
<https://www.mhlw.go.jp/content/000761589.pdf>(2023.02.10. 추출)을 재작성함

- 활동범위는 ① 고령자 등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 ② 스스로의 개호 예방을 위한 참가(예 이동보조, 가사지원보조, 말벗서비스, 레크레이션 등의 지도·참가보조, 식당·차집 운영보조, 행사도우미, 시설직원 보조 등)이 있음
- 활동장소는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있는 장소로 구분 ① 시설 내 활동(노인복지시설·데이서비스·사회교육시설·아동시설·장애인시설 등), ② 재택활동(요지원 또는 요 개호고령자의 주택 등), ③ 그 외 보람만들기 활동
 - 재택활동과 같이 활동과정과 실적에 대해 제3자확인 어려운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의 매칭을 제3자가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제3자가 대응, 제공자에게 활동 전에 마음가짐과 유의점 등 학습할 필요가 있음
- 활동 포인트는 1인당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활동 횟수, 금액에 상한선 설정, 포인트의 유효기한 설정
 - 포인트의 가시화를 위해 자원봉사 참가자에게 보유 포인트 수를 인식할 수 있는 기록매체(수첩, IC카드, 마이넘버카드 등)를 작성, 교부
 - 포인트 보상 신청은 제공자가 ① 행정기관에 신청 → 위탁기관에서 교부, ② 위탁기관에 신청 → 행정기관에서 교부, ③ 위탁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신청 → 위탁기관에서 교부하는 방법이 있음
 - 포인트 보상은 현금, 금권, 지역화폐, 기부 등의 방법이 있음

돌봄활동은 보조적
활동이며, 포인트 포상
방식은 다양

〈표 1〉 포인트 보상 방법

분류	방법
현금으로 교환	포인트에 상당하는 현금 교환
금권으로 교환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권(상품권, 공공시설 입장권 등)으로 교환
지역화폐로 교환	포인트에 상당하는 해당 지자체 내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교환
기타	개호보험료의 일부 납부, 지자체의 기금에 기부

- 일본의 볼란티어포인트제도는 지자체에 따라 대상자, 활동범위, 운영체계, 보상방법 등이 다양한데 가장 먼저 제도를 시행한 동경도 이나기시의 사례를 소개
 - 대상자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임
 - 2021년 기준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연간 약 200만엔의 보조금 지급
 - 주요활동은 개호보험사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개호예방 효과가 예상되는 활동(레크레이션 등 지도·참가 지원, 식당 내 급식 보조, 이동 보조, 말벗, 세탁물 정리, 쓰레기 배출 등)이며 방문요양서비스나 사업소의 본래 업무를 대체하는 활동은 아님
 - 지정활동대상단체(수행기관)는 24단체로 사회사업법인(6개소), 주식회사(8개소), NPO법인(4개소), 의료법인(1개소), 공공단체(1개소), 기타단체(4개소)가 있음
 - 포인트활용 방법은 다양하나 그 중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은 활동실적(횟수)에 따른 평가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

〈표 2〉 활동실적과 포인트 보상

활동실적	평가포인트	보상교부금	비고
10~19회	1,000포인트	1,000엔	1시간당 1스탬프(100포인트)를 부여하며 1일 상한은 2스탬프까지이며 스탬프 부여기간은 1년(4월 1일~다음해 3월 31일)이며, 평가포인트 부여기간은 다음 연도 4월까지임 포인트 교환 신청기간은 다음 연도 7월 함
20~29회	2,000포인트	2,000엔	
30~39회	3,000포인트	3,000엔	
40~49회	4,000포인트	4,000엔	
50회이상	5,000포인트	5,000엔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2021.3).『볼란티어포인트제도 도입-운용안내서』
<https://www.mhlw.go.jp/content/000761589.pdf>(2023.02.10. 추출)

▶ 서울 시간은행제도¹³⁾

- 2022년 5월 서로 돕는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
 - 본인의 시간을 할애해 이웃을 돕고 시간화폐를 적립, 도움이 필요할 때 화폐를 사용하는 신개념 품앗이
- 운영주체는 서울시청이며 국민대-정릉지점, 서울시청지점,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지점, 흥은동 타임뱅크하우스지점 등 4지점과 서울시민지점이 운영 중

13) 김윤경(2022.06.20.). "시간을 저축하고 도움을 인출해요...요즘 품앗이 서울 시간은행". 내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849> (2023.04.14. 추출)

서울 시간은행은
다양한 종류의 도움을
시간화폐방식으로
주고받는 신개념
품앗이

- 국민대-정릉지점은 국민대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활동, 재능교환, 지역상권살리기,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공유활동 중
 - 시청지점은 일과 직장어린이집이 연계된 직장연계형으로 운영
 - 방아골지점은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중심의 세대통합형 공간 연계 모델
 - 타임뱅크하우스 지점은 서대문구 흥은동을 거점으로 생활권 기반형 중 지역거점 모델, 문제해결형 중 노노케어 모델로 운영
 - 서울시민지점은 4곳의 시범 모델 지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가입하는 지점
- 이웃과 도움을 주고 받은 시간을 적립, 인출되는 시간단위 화폐로 운영됨
- 시간은행에 가입하면 기본 300페이가 부여되며, 도움을 주는 시간에 따라 타임페이가 지급됨
 - 최소활동단위는 30분(30페이)임
- 온라인플랫폼인 네이버 카페에 자신이 소속된 지역의 지점을 선택, 지점이 없으면 서울시민지점을 선택하여 가입 후 → 1대1채팅이나 코디네이터를 통해 약속을 잡아 도움을 거래할 수 있음

기존 사례의 시사점 : 활동범위, 운영기관, 보상방법 등의 측면

▶ 위의 세 가지 사례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사례 분석표

구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일본 볼란티어포인트	서울 시간은행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개호보험 피보험자	서울 시간은행카페 가입자
제공자	만 13세 이상	지역주민	
활동 범위	①인지활동 및 정서지원(말벗, 안부전화, 여가/문화활동 보조, 치매 및 우울증 예방 활동 등), ②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및 보조, 청소 및 주변정리, 세탁, 일상업무 대행, 용모관리 등), ③주택안전관리(주택 개/보수, 전기/가스 안전확인, 형광등 교체, 낙상 예방 조치 등), ④기타(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① 고령자등에 의한 자원봉사 활동 ② 스스로의 개호 예방을 위한 참가	활동지점에 따라 상이
운영 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정촌 (시정촌에 따라 위탁)	지점에 따라 상이 (서울시 또는 위탁기관)
보상 방법	돌봄활동 1시간 당 1돌봄 포인트 적립 적립 돌봄포인트 20% 의무 기부, 적립한 돌봄포인트는 가족 제3자에게 기부, VMS 환산 연계 가능	1인당 포인트 부여(활동횟수, 금액 상한선·포인트의 유효기한 설정) 현금교환, 금권교환, 지역화폐교환 등	신청 시 기본 300페이 부여, 최소 활동 단위 30분(30페이)임

▶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타임뱅크 운영방식의 돌봄서비스 이용 플랫폼은 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활동범위와 운영기관이 차별화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양한 보상체계로 운영

타임뱅크 방식은 다양한 대상과 여러 보상체계를 결합할 수 있어 서로돌봄 수단으로 활용 가능

- 타임뱅크의 시간화폐를 영국은 타임크레딧, 미국은 타임달러, 일본은 볼란티어포인트,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돌봄포인트, 서울은 타임페이로 칭함
- 시간화폐는 활동에 따라 적립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기부나 선물하기도 가능
- ▶ 위의 세 사례의 대상은 서울시의 일부 지점을 제외하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인돌봄이 주 활동 범위로 되어있음
- 일본 볼란티어포인트제도는 14년간 개호보험의 교부금 사업으로 운영되었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지자체는 3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도입 및 설계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
- ▶ 돌봄 거래소는 지역 문제의 해결, 공공돌봄서비스의 틈새를 채우는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서로 돌봄 관계를 형성하여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을 시사

시사점을 통해 경기도 돌봄거래소 설계를 위한 쟁점 세 가지를 도출

돌봄거래소 운영을 위해 세 가지 쟁점사항을 고려

▶ 쟁점 1. 기능의 독립성 확보

-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돌봄서비스 정책과 유사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에 가까운 비전문적 활동으로 돌봄서비스의 보완에 해당
- 선정조건이 없이 누구나 이용하고 제공하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서비스 정책의 틈새를 해소하는 기능 부여
- 보수를 수반하지 않는 돌봄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원봉사와 유사하나 돌봄거래소는 돌봄이라는 영역으로 특화되며 일방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활동을 시간으로 기록·적립·교환하는 연속적 교환방식의 채택으로 차별화

▶ 쟁점 2. 운영기관의 공공성 확보

-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와 제공자 또는 수행기관의 정보 관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위탁사무로 진행
- 위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행정기관은 위탁기관의 평가와 관리를 수행

▶ 쟁점 3. 보상방법의 적합성 확보

- 보상방법은 관련기관 및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하며, 이용자와 활동범위·지역여건에 따라 적합한 보상방법을 선택
- 시간당 보상정도와 보상방법(돌봄서비스 교환, 기부 및 지역화폐 교환 등)은 다양하나, 보상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서로돌봄의 취지로 운영

이용자 및 서비스
활동범위 구체화,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 ▶ 누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 활동범위가 정해지고 수행기관이 선정되며 사업규모와 성과에 영향을 줌
 - 서울시의 시간은행은 지점에 따라 유연하게 정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65세 이상 노인, 일본의 볼란티어포인트제도는 개호보험의 피보험자로 한정
- ▶ 이용자 범위를 ① 노인, ② 돌봄이 필요한 성인(노인, 장애인, 1인가구 등), ③ 도민(노인, 장애인, 1인가구, 아동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이용자 범위가 정해지면, 이용자의 돌봄 욕구에 따라 활동범위를 설계하고 해당 활동의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은 모집하여 운영

자발적·비전문적이며 공공돌봄서비스의 보완적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범위 설정 필요

- ▶ 돌봄활동의 범위는 공공돌봄서비스의 범위와 유사하며 물리적 범위는 지역주민의 생활활동 범위로 검토
 - 공공돌봄서비스의 범위인 말벗·안부전화·일상생활지원 보조, 동행, 세탁물 정리 등 일상생활지원의 보조적 활동임
 - 돌봄활동의 물리적 범위는 시·군단위 보다는 실생활활동 범위로 검토 필요
- ▶ 돌봄활동은 일반 주민의 자발적 신청으로 시작되는 돌봄서비스 이용체계로 전문적 공공돌봄서비스를 보완하는 비전문적 활동이나 돌봄활동 제공자에 대한 교육 필요
 - 돌봄활동 이용자의 자택에서 행해지는 돌봄활동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는 필수적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공유

- ▶ 돌봄거래소는 사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수행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움직이는 돌봄서비스 이용체계로 유연하면서 촘촘한 네트워크가 중요
 - 지역주민이 돌봄활동의 이용과 제공을 신청하면 운영기관은 지역의 제공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함
- ▶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과 위탁기관, 수행기관, 유관기관의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위한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견수렴 필요